

전문대학원 통번역학 박사과정생 연구 능력과 논문 지도에 대한 교수자 면접조사*

이 지 은 · 송 연 석
(이화여대 · 한국외대)

1. 서론

국내에 첫 통번역학 박사과정이 개설된 2000년 이후 20여 년간 통번역학은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성장을 이뤘고 많은 통번역학 박사를 배출했다. 국내 최초로 2000년 통번역학 박사과정이 개설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과 2005년 개설된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에서 2021년 8월 기준 양교 통합 백여 명(한국외대 81명, 이화여대 21명)이 넘는 박사가 배출됐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생들이 박사과정 코스웍을 마쳤다. 박사과정은 2년의 코스웍을 마치고 박사논문 제안서 심사를 통과한 뒤 박사학위논문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해 심사를 통과하면 박사학위를 수여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양교에서 상당수의 영구수료자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박사과정 입학에서 학위 수여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임을 시사한다. 일반대학원과 달리 국내 전문대학원의 통번역학 박사과정은 석사학위논문이 필수 입학 요건이 아니며 석사학위논문이

* 이 연구는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석사과정 졸업의 필수 요건도 아니기 때문에 통번역학 박사과정생 대부분은 통번역 실무 경험은 많을지라도 연구 경험은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Lee and Nam 2020: 427). 박사과정 진학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대부분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스웍을 마치지만 실무 능력이 훌륭해도 박사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습 부진을 겪는 경우도 있으며, 논문 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통번역학 박사과정은 석사과정과 달리 통번역 실무 과목이 배제되고 통번역학 및 인접 학문의 이론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론적 기반이 미약하고 연구 경험도 부족한 박사과정생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실무와 이론/연구의 간극을 메우고 이들이 연구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인가는 국내 통번역학 박사과정이 풀어야 할 숙제이며, 논문 지도를 맡는 교수자들의 공통된 고민이자 관심사일 것이다.

그동안 통번역 교육에 대한 연구는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이뤄지는 통번역 교육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져 왔을 뿐(손지봉 2019; 신지선 2019; 원종화와 진실희 2021; 이경희 2020; 이지은 외 2014; 임세인 2020; 조성은 2007; 허지운 2019), 통번역학 박사과정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년간 박사과정 교과목을 가르쳐온 두 연구자가 박사과정생 논문 지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개선 방법을 탐구해 보고자 하는 실제적 필요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는 박사생의 연구 능력 배양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논문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논문 지도 경험이 있는 교수자들의 시각과 경험을 듣기 위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2장에서 통번역학 박사 지도 및 연구 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과 4장에서 본 연구에 해당하는 면접조사 방법과 결과를 소개한 후 마지막 5장에서 결론과 함의를 도출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논하기로 한다.

2. 관련 선행연구

2.1 박사학위논문 지도

박사과정생(이하 박사생)이 코스웍을 마친 뒤 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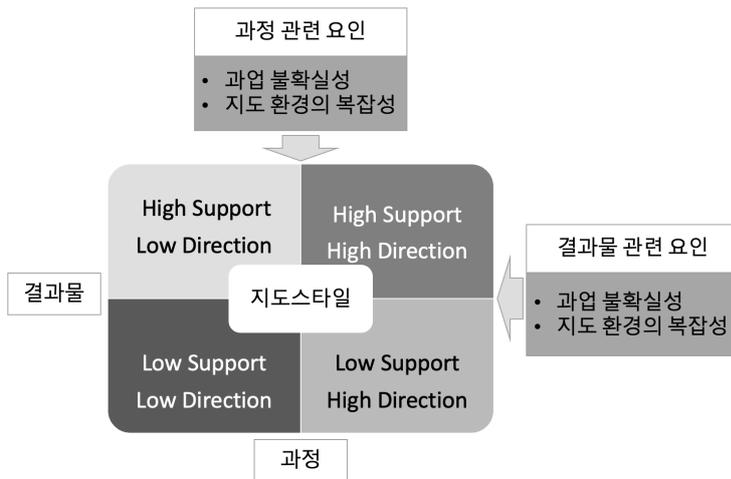
를 정하고 연구를 설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베르드릭 외(Sverdlik et al. 2018: 365-368)에 의하면 외적인 요인에 논문 지도, 개인 생활, 학과 구조 및 사회화, 재정 등이 포함되며, 내적인 요인에 학습 동기, 글쓰기 능력, 자기 관리 전략, 학문적 정체성 등이 해당된다. 로비츠(Lovitts 2008: 298)는 박사연구의 성공 요인을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하고, 분석력과 창의력을 포함한 지적 능력, 지식, 사고방식, 개성, 학습동기 등은 개인적 자원으로, 학생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지도교수와 동료 학생, 박사과정 프로그램, 학과, 대학원 교육 문화 등은 사회적 자원으로 각각 분류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학교와 교수자 개인이 다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박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학위논문에 대한 지도는 교수자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는 박사생의 개인적 고민 차원에 그칠 때가 많았고 연구 대상으로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지도교수는 연구, 강의, 행정 등 자신의 업무와 박사생 지도 사이에서 제한된 시간과 관심을 안배해야 하고 박사생 지도에도 박사생마다 각기 다른 학습 동기, 학습 스타일, 대인 관계 성향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도교수로서 언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논문 지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관 내지 경험칙 등에 의거해 자신의 학생을 지도할 가능성도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논문 지도 스타일은 결국 지도 받는 학생(이하 지도학생)과 지도 교수 간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 관계를 관장하는 원칙에 좌우되며(Boehe 2014: 400)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로버와 말호트라(Grover and Malhotra 2003)는 상호작용의 스타일을 기준으로 지배형(domineering) 대 참여형(participative), 상호작용의 빈도를 기준으로 밀착형(hands-on) 대 방임형(hands-off)으로 구분했다. 갯필드(Gatfield 2005)는 지도에서의 정해진 틀을 의미하는 구조(structure)와 지지(support)를 기준으로 지도 스타일을 각각 고/저(high vs low)로 분류하고, 高지지+高구조형(high support, high structure)에 해당하는 일종의 ‘계약’ 관계일 때 빠른 시일 내 논문을 제출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라이트 외(Wright et al. 2007)는 학생을 관리받는 학습자(managed learner) 대 자율적인 학습자

(self-directed learner)로 나누고 기한 내 논문 완성과 독창적 논문 작성이란 두 가지 방향에 따라 지도 스타일을 구분했고 머피(Murphy 2009)는 통제형(controlling) 대 가이드형(guiding), 그리고 과업중심형 대 사람중심형으로 각각 두 가지로 지도 스타일을 분류하기도 했다. 보에히(Boeche 2016: 401)는 이처럼 다양한 지도 스타일을 결과물(세로축)과 과정(가로축)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여기에 지지(support)와 지시(direction)를 조합한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그림 1).

〈그림 1〉 지도 스타일 (Boeche 2016: 404)



예컨대 지도교수는 논문 작성 시 개념, 방법론, 글쓰기 등을 긴밀하고 지지적인 관계 속에 밀착 지도할 수도 있고(High Support, High Direction), 그 반대로 지도학생이 지도교수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게 하는 방임형 지도(Low Support, Low Direction)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교수의 권력(power)과 전문성은 연구 실적과 학계 인맥에 기반한다(Boeche 2016: 408). 하지만 지도학생이 연구 기간 동안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심층 지식을 빨리 축적하여 지도교수보다 앞서는 경우, 지도교수는 통제보다는 방임형 접근법을 취하고 지도학생은 보다 빨리 연구자로 독립하여 지식 측면에서 지도교수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하게 된다(Boeche 2016: 409). 실

제로 한국외대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박사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Lee and Song 2022)에서 박사생들은 지도교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거시적 방향 제시와 더불어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한 분위기 및 관계 조성을 선택했다. 이는 연구 주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도학생이 지도교수에 비해 자신의 연구 분야 심층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하게 되는 경우, 지식을 중심으로 한 권력 관계에서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분위기와 관계 조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여기서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의 목표와 기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도 중요한데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이 공통의 기대와 관심,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자가 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Boche 2016: 409). 보에히는 이 점에 착안해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특성, 예컨대 연구 과정 중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하는 편인지, 시간 경과에 따라 기대와 목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문적 지식과 연구 능력은 어떻게 쌓아나가고 있는지, 지도교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이 있는지 등을 지도학생에게 묻고 함께 적합한 지도 스타일을 그림 1을 참고해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ibid.: 411-412).

2.2 통번역학 박사생의 연구 능력

연구자로서 대학원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는 연구 능력, 연구 설계와 실행 역량, 창의적 역량 등이 거론되는데(김승정 2017; Austin and McDaniels 2006) 그 가운데 특히 연구 능력이 핵심 요건으로 간주된다(박현정과 신태수 2007; 이진령, 박강현, 윤소정 2020; 최윤미 외 2010). 연구 능력의 핵심적 의미는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계획, 적용, 해결할 수 있는 역량에 있으며, 충분한 연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국내외 논문을 검토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연구수행에 활용해야 하며, 학문적으로 요구되는 형식과 기준에 맞게 논문을 쓰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이진령, 박강현, 윤소정 2020: 353-354). 또한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 분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통섭적 역량도 요구되며(성은모, 오현석, 김윤영 2013), 자기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과 같이 다른 사

람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일반적인 핵심 역량들도 중요하다(이진령, 박강현, 윤소정 2020: 351). 박현정과 신태수(2007: 31)는 연구 역량을 비롯한 7가지 대학원생 핵심 역량을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연구 능력을 박사생 핵심 역량 요인의 증핵으로 보고, 연구 능력의 하위 요소로 ‘연구 문제 제기 능력, 학문적 글쓰기 능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연구 능력, 비판적 논리적 사고, 연구 분석(자료 생산, 수집, 정리 및 질적 양적 연구 분석) 능력’을 포함시켰다.

연구자로서 발전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에도 차이가 조금씩 있다. 최윤미 외(2010: 11)에 의하면 연구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한 연구 역량이 있지만 학문 연구 단계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 그 구성 요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대학원생들은 글쓰기 능력을 글을 잘 쓰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정도였지만 교수와 연구원 집단은 글쓰기를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비판적 시각을 글로 담아내고 소통하는 능력으로 간주했다(최윤미 외 2010: 11). 교육학 대학원 석박사생들과 교수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최윤미 외 2010: 12)에서는 교육학 연구 역량 요소로 현상에 대한 안목, 문제의식, 글쓰기 및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팀워크, 가치관과 태도, 간학문적 관점 등이 거론되었다.

대학원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논한 상기 선행 연구에서 대학원생은 일반대학원 소속 학생 연구자를 가리킨다.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 양성이 특징이다(고등교육법 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 동법은 전문대학원을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 개발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통번역학 박사과정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연구 능력이 요구되는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나 학술학위(doctor of philosophy)와 전문학위(professional doctorate)로 구분되는 박사학위 중 양교 모두 현재 학술학위(PhD)를 수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생 연구 능력을 상당 부분 대입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통번역학 박사과정 연구에 필요한 역량이 일반대학원생 연구 역량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고 통번역학 연구와 박사 지도에 대한 논문도 소수에 불과하다. 통번역학 박사과정 경험

과 박사과정 교수법을 다룬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특별호 제3권 1호에 수록된 논문들이 통번역학 연구를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었고(e.g., Burns et al. 2009; Halverson 2009; Olohan and Baker 2009) 홍콩의 통번역학 박사과정(Li and Zhang 2011)과 벨기에의 통번역학 연구 교육을 소개한 연구(Vandepitte 2013)가 있는 정도다. 그밖에 헬버슨(Halverson 2009: 79-80)이 통번역학 박사 교육에서 메타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구 세미나를 통해 박사생들이 자신의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동료 상호 비평 시간을 통해 메타 인지능력을 배양할 것을 제안했고, 울로한과 베이커(Olohan and Baker 2009)는 코스웍이 없는 영국 박사과정의 특성을 반영해 박사과정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설계 워크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통번역학 연구 능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밴더피트(Vandepitte 2013)를 주목할 만하다. 그는 유럽 대학기관에 관한 규정과 유럽 내 번역 규범 등 관련 문헌을 토대로 통번역학 연구를 인문학적 접근과 실증주의적 접근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구분하고 각 연구 유형에 필요한 연구 능력을 열거한 후 겐트 대학의 학위과정별 교육 목표를 인용하면서 동대학의 통번역학 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 능력 12가지를 연구 수행 단계별로 설명했다. 그는 이를 다시 능력 유형, 영역, 적용 분야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설명하는 한편, 연구 능력을 다시 인지적, 감정적, 정서적, 감각운동적 능력 등으로 분류했다(Vandepitte 2013: 132). 밴더피트(Vandepitte 2013: 130-131)는 동대학의 통번역학 석사학위 논문 학생 지도 목표를 구체화하여 독창적인 연구 문제 도출과 해당 학문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에 연구 문제가 정합되도록 하는 능력,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최상의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 능력, 최적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 자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로 연구 자료를 선정하는 능력, 객관적인 관찰, 자료 정리 분석과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는 능력, 결론 도출 능력, 자신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외국어로 논문 쓰는 능력을 통번역학 연구 능력으로 꼽았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번역학 연구 능력과 번역 능력 간의 유사성과 접점에 대해 논한 대목이다. 요약하자면 번역이 매우 복잡한 인지 활동으로 연구와는 분명히 구분되나 번역 전공생들이 번역을 위해 수행하는 검색과 연구 활동이 번역학 연구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번역 교육

을 통해 번역학 연구 교육이 일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Vandepitte 2013: 143). 하지만 번역 능력과 연구 능력은 분명히 다른 능력이며, 대부분 실무 중심의 석사교육이 이뤄지는 국내 여건에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와 송(Lee and Song 2022)이 통번역학 박사생의 연구 능력과 관련해 통번역 실무 및 교육 능력을 문항에 포함시켜 국내 전문대학원 통번역학 박사생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했는데, 실무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을 통번역학 연구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박사과정을 통해 실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통번역학 연구 능력과 연구 능력 배양에 대해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연구 방법

면접조사는 통번역학 박사과정에서 강의 및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외대와 이화여대 양교 통번역대학원 교수들 중 면접조사 기간 동안 섭외 가능한 8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실시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줌(Zoom)을 이용한 화상면접으로 진행했으며, 개별 면접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기본적인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되 즉석에서 보충 질문과 응답이 이뤄지는 반구조화 면접조사의 형식을 가미한 심층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면접조사 참가자의 전공언어는 양교에서 박사학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영어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어 2명, 중국어 1명, 러시아어 1명, 프랑스어 1명 등이다. 연구에 참가한 교수자들의 학위취득연도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고루 분포했고 코스웍 후 학위 취득까지 소요된 시간도 2년부터 7년까지 다양했다. 전공 분야는 통번역학을 포함한 어문학과 교육학으로, 지도 경력은 최종 배출된 박사학위자 기준 1명~10명(평균 4.6명, 중앙값 7명)으로 다양했다. 실무를 병행하는 통번역학 박사생들이 많아 학위논문 작성이 장기화되면서 지도 기간(4년~14년, 평균 11년, 중앙값 12년) 대비 실제 배출된 인원이 적다는 점은 양교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교수로서의 업무 중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0%로 다양했으나 평균 30% 내외였고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에서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박사1 대 석사 3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박사학위논문 지도에 대해서는 참가자 전원이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답했다. 본 면접조사는 모집단 자체가 워낙 소수라 익명성 보장을 위해 참가자별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질문지는 크게 면접조사 참가자의 기본 정보, 박사생 지도에 대한 관점 및 지도 스타일, 박사생의 연구 능력 및 연구 능력 향상법에 대한 의견, 코스웍 이후의 지도에 대한 생각, 기타 의견 등으로 구성했다(표 1).

〈표 1〉 질문지 구성

참가자 기본 정보	학위취득년도, 학위취득 소요시간, 전공분야, 박사생 지도경력, 업무 중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 논문지도 비중/부담, 박사 대 석사 교육 비중
박사생 지도	지도 시 애로점, 지도가 가장 어려운 학생 유형, 지도 시 중점,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닐 때의 지도 방법, 본인의 지도 스타일, 지도교수의 역할, 박사생이 기대할 것이라 생각되는 지도교수의 역할
박사생 연구 능력	연구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 박사생에게서 가장 부족한 요소, 학생 간 개인차가 가장 큰 요소, 연구 능력 향상법, 학술적 글쓰기 훈련법
기타 의견 및 제안	코스웍에 대한 의견, 코스웍 이후의 지도에 대한 의견, 기타 박사생 지도 전반에 대한 의견 및 조언

이 중 지도 스타일에 대한 질문은 교수자 판단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면담 횟수 등 밀착 지도 여부, 독창성과 속도 중 어느 쪽을 더 중요시 하는지, 지도 시 중점을 두는 부분으로 세분화했다. 연구 능력 요소 및 지도교수의 역할에 대한 질문은 교수자와 박사생의 관점을 비교해 보기 위해 양교 통번역학 박사과정 수료생과 졸업생 73명에 대한 설문조사(Lee and Song 2022)에서 사용된 설문지 중 해당 부분을 발췌해 사용했으며, 연구 능력을 10가지 구성 요소(학문적 지식, 실무에 대한 이해 및 경험, 비판적 사고력, 학문적 글쓰기 능력, 문헌 검색 및 활용 능력, 연구 설계 능력,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 커뮤니케이션(연구 발표) 능력,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대인관계 능력, 연구윤리 준수 능력)로 분류해 질문했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4.1 박사생 지도

4.1.1 박사생 지도의 애로점

박사생을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교수자들의 답변은 대부분 비슷하고 중복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도학생이 이론 등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아 논문을 쓸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둘째, 지도학생이 실무 병행으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기 부여가 어렵다는 점, 셋째, 주제가 늘 새롭고 다양하며 학제적 연구가 많아 지도교수 자신도 잘 모르는 분야를 지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도교수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주제일 때의 지도 방법에 대해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자 모두 방법론 위주로 지도한다고 답했다. 해당 분야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연구 방법, 연구 절차, 논지 전개 등은 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절차적 구성, 논지 전개 등 큰 흐름 중심으로 지도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라고 조언하기도 해요. (교수자 #1)

... 내[지도교수]를 가르쳐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교수자 #4)

지식은 논문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부분이 아니에요. 해당 분야에서 학생은 항상 앞서 있어야 돼요, 저보다. 범정통역을 한다면 그 학생이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해요. 저는 그 학생이 범정통역을 전체 학문 분야에서 혹은 통번역학에서 어떻게 어떤 틀을 가지고 연구해나갈 것 인가에 있어서 러닝메이트가 되는 거죠. 큰 틀에서 바라보게 해주고 내가 갈 코스가 어떤 코스인지를 큰 틀에서 바라봐주고 학생이 그걸 가져가는 방법을 같이 뛰어가면서 도와주는 거죠. 지식은 학생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수자 #5)

지도하기 어려운 유형은 지도학생의 태도나 자세 문제가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주요 답변마다 유사하게 응답한 교수자 숫자를 괄호 안에 표기하

였다. 주관이 너무 강해 지도교수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경우(3명), 실무 병행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스로 동기 부여를 못하는 경우(3명), 자기주도적 연구를 못하고 수동적으로 지도교수가 지시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경우(2명),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학위는 빨리 받고 싶은 욕심만 앞서는 경우(2명) 등이 지도하기 어려운 유형이었다.

4.1.2 지도 스타일

교수자들의 논문 지도 스타일에는 개인적 차이가 있었다. 연구 방법부터 글쓰기 등 일일이 지도하는 편이라는 교수자는 1명이었고 나머지 교수자들은 논문 상태에 따라 다르나 밀착 지도는 하지 않으며 거시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심사를 앞둔 마지막 단계에서 글쓰기를 점검 및 지도한다고 답했다. 연구 참가자 중 절반은 현재의 지도 스타일이 과거 자신의 지도교수 스타일과 비슷하다며 당시 경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위논문의 독창성(품질)과 기한을 맞추기 위한 속도 중 어느 쪽을 우선시 하는가에 대해서는 8명 중 6명이 가급적 빨리 끝내는 쪽을 선택했다. 품질을 중시한다는 나머지 2명도 임용 기회나 나이 등 지도학생의 사정에 따라서는 빨리 마치는 데 주력한다고 답했다. 특히 다음 두 교수자들과 같이 박사논문을 연구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면허’나 ‘자격시험’으로 비유하는 의견이 많았다.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의 관문이죠. 하나의 자격 취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취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연구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자고 하죠.. (교수자 #3)

.... 박사학위는 운전면허증이란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만 하려고 하면 ‘평생 따라 다니는 건데 대충 쓸 거냐’는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죠. (교수자 #5)

지도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논리성·설득력·독창성(3명), 실용적·사회적·학문적 기여도(2명), 많이 읽고 생각하기(2명), 동기 부여(2명), 연구 범위(1명), 진도 및 기한(1명)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4.1.3 지도교수의 역할

박사생 설문조사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다지선다형 질문을 통해 지도교수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8명 전원이 ‘거시적 방향 제시’와 ‘정신적 지지와 격려’를 선택했고 그다음으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한 분위기나 관계 조성’, ‘구체적인 개선 방법 제시’,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나 문헌 제공’ 순이었으며, ‘구체적인 문제 지적’과 ‘연구 학술활동 롤 모델’을 선택한 교수자는 한 명도 없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양교 박사과정 수료생 및 졸업생 설문조사(Lee and Song 2022)에서도 거의 동일한 답변이 나와 일반적인 지도교수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측의 관점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표 2).

〈표 2〉 지도교수의 중요 역할

지도교수		박사생	
1	거시적 방향 제시 (8명, 100%) 정신적 지지와 격려 (8명, 100%)	1	거시적 방향 제시 (73.97%)
		2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한 분위기나 관계 조성 (61.64%)
3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한 분위기나 관계 조성 (4명, 50%)	3	구체적인 개선 방법 제시 (49.32%)

그런데 지도학생이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가장 크게 기대할 것이라고 추측되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응답에서는 이와 송(2022)에 나타난 실제 박사생들의 응답 대비 2위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표 3〉 박사생이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기대하는 역할

	지도교수	박사생
1	지도교수의 피드백 (7명, 87.5%)	지도교수의 피드백 (90.4%)
2	지도교수의 학계 인맥 및 대외 활동 (5명, 62.5%) 지도교수의 격려 및 동기 부여 (5명, 62.5%)	지도교수의 연구 능력 (74%)
3		지도교수의 격려 및 동기 부여 (57.5%)

교수자 답변 2위인 ‘지도교수의 학계 인맥 및 대외 활동’은 박사생 조사에 서는 최하위(16%)였다.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외부 활동보다 연구 능력이라는 내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은 통번역 실무자인 동시에 연구자이 기도 한 교수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구체적 문제 지적’을 꼽은 교 수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에 비해 박사생들은 이를 4위로 꼽았을 정도로 지도 교수에게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기대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방향 제시에는 양측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미시적인 지도 과정에서 서 로의 기대와 니즈(needs)가 불일치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 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관계일 경우 성공적인 박사지도는 기대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2 박사생의 연구 능력

4.2.1 연구 능력의 핵심 요소

가장 많은 교수자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핵심 요소로 꼽았고, 실무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연구 설계 능력,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은 순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와 송(Lee and Song 2022)에 따르면 박사생들은 5점 척도 평가에서 연구 설계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고, ‘비판적 사고력’은 ‘학 문적 지식(4.47)’과 함께 공동 4위에 그치는 등 10가지 연구 능력 구성 요소 중 핵심 요소 세 가지에서 지도교수와 박사생 간의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표 4).

〈표 4〉 연구 능력의 핵심 요소

	지도교수	박사생
1	비판적 사고력 (5명, 62.5%)	연구 설계 능력 (4.62)
2	실무에 대한 이해 및 경험 (4명, 50%) 연구 설계 능력 (4명, 50%)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 (4명, 50%)	학문적 글쓰기 능력 (4.53)
3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 (4.52)

박사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연구 능력 요소에서도 양측의 시각차가 확인됐 다. 교수자들은 ‘학문적 지식’, ‘비판적 사고력’, ‘학문적 글쓰기 능력’을 가장 부족한 요소로 꼽았는데 박사생들 스스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항목은 ‘학

문적 지식’, ‘연구 설계 능력’, ‘학문적 글쓰기 능력’ 순이었다. ‘비판적 사고력’이 교수자들 관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 중 하나였지만 박사생들이 느끼기에는 10개 항목 중 6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의 차이 역시 박사논문 지도 시 발생하기 쉬운 의사소통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사생 스스로는 연구 설계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도교수가 이를 도와주기를 기대하기 쉽지만 교수자는 지도학생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만큼 충분한 공부와 훈련이 되지 않았고 수동적으로 지도교수가 알려주기만을 바란다고 느낄 수 있다. 이는 앞서 박사생 지도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답변, 즉 ‘자기주도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지도교수가 지시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경우’,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학위는 빨리 받고 싶은 욕심만 앞서는 경우’ 지도가 어렵다는 답변과 일맥상통한다.

4.2.2 연구 능력 향상 방법

박사생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교수자들이 ‘논문(문헌) 많이 읽기(4명)’를 제시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논문을 많이 써보고 발표도 해 봐야 한다(2명)는 의견도 있었다.

...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좀 무모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많이 발표하고 많이 써 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공부고 경험이니깐요. 논문 백 편 읽는 거보다 한 편 쓰는 게 더 큰 공부가 될 것이고 논문 발표 백 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번 발표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다, 적극적으로 많이 쓰고 많이 발표해봐라, 다만 박사학위논문은 겸손하게, 신중하게 써라... (교수자 #1)

너무 책상에 앉아서 혼자 책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사람들 만나서 토론도 하고... 자기가 책 있으면 읽히기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 같은 분야 비슷한 동료끼리 떠오르는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할 수 있음 좋은데 그런 대화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연구 능력이 꼭 쓰는 걸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연구할] 거리도 줄 줄 알고 비판도 할 줄 알고 가공도 할 줄 알고 또 지식을 쌓기도 하고 다 융합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지식 쌓는, 특히 종이나 인터넷으로 얻은 지식만 쌓는 기능이 확대되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교수자 #6)

박사논문 보는 거보다 소논문을 보는 게 도움이 돼요. 박사논문은 방대한 자료에 문헌연구도 양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자료에 길이가 길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소논문을 읽으면서 연구를 어떻게 설계했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고, 통계기법을 썼다면 무슨 기법인지를 살펴보며 배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온 참고/인용 논문을 순차적으로 다 읽어보는 거. 이것의 반복 훈련인 거 같습니다. (교수자 #8)

교수자 조사와 박사생 조사 모두에서 중요하면서도 부족한 능력으로 꼽힌 ‘학문적 글쓰기’ 및 효과적인 논문작성 훈련법으로 가장 많은 교수자들이 제시한 방법은 ‘좋은 논문 많이 읽고 모방하기’였다(4명). 그 밖에 ‘짧게 쓰는 연습부터 시작해 점차 분량 늘려 나가기’, ‘글쓰기용 책이나 과정, 인문대 수업 수강’ 등을 제시한 교수자도 있었다.

모범이 될 만한 논문을 선정해서 그대로 모방해 써보기, 연구 문제, 연구 방법, 분석 방법, 글쓰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커스를 달리하여 그대로 따라해 보기... (교수자 #7)

논문이 아닌 글쓰기 책을 집중적으로 많이 봐서 글은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걸 많이 보고 나면, 어느 정도 글을 볼 줄 알게 되고, 그다음엔 논문을 많이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글쓰기 책은 논문 아닌 일반인을 위한 가이드북을 말하는데 글 잘 쓰는 법은 단시간 내 습득 가능해요. 이걸 논문 읽기로 하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쌓아 놓고 글쓰기 책을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 어떤 원칙이 보입니다. 그다음부터 신간 위주로 읽으면 되는 건데요. 원칙을 알고 나면 잘 쓴 글과 못 쓴 글 보는 눈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논문을 보는 시각도 생기는 거죠. (교수자 #8)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연구 능력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는 의견부터 상당히 많다는 의견까지 고루 분포했는데, 그리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답변도 그것이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지도교수란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이고 연구는

지도학생이 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가까웠다.

경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칠인삼(馬七人三)’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의 능력이 70%, 기수의 능력이 30%란 거죠. 그런데 그게 경마뿐 아니라 ... 박사학위논문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숫자로 한다면 지도교수의 역할은 아마 30% 정도일 거고 박사생 본인의 노력이 70%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자 #1)

4.3 기타 의견 및 제안

양교 박사생들은 실무 중심인 통번역 석사과정에서 이론적 지식이나 학위 논문 작성 경험 없이 실무 경험만 가지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2년의 코스웍만 마치고 논문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송(Lee and Song 2022)의 박사과정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에서 코스웍 동안 자신의 연구 능력을 매우 낮게 평가한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수자들은 코스웍 2년이면 충분하며 공부하는 결국 학생이 노력하기 나름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 그보다는 실무를 병행하느라 학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학생 간 개인차도 큰 편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뭘 쓰겠다 설계를 하고 [박사과정에] 들어오든가 아니면 한 학기 혹은 최소한 두 학기까지는 내가 쓸 주제와 연구방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머지 한 학기는 연구 설계를 해야 되고, 또 통대에서만 강의를 들으려 하지 말고 일반대학원 등에 가서 자기 연구방향에 따라 유익한 강의를 찾아 들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수자 #2)

제안서 아이디어가 빨리 나오지 않는 건 참고문헌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읽기와 모방해서 써 보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수자 #4)

코스웍 이후 박사 지도에 대한 기타 제안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술적 관점에서 지도교수 역할의 중요성이다. 친목 도모와 학술 정보 교환, 인맥 확대 기회를 위한 박사생 세미나 참가와 학회 발표를 적극 권유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도교수가 박사생과 한 팀이 되어 지식을 어떻게 관리해 결과물을 낼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두 번째는 박사생 본인 학업 태도의 중요성이다. 아래 교수자 #4의 의견처럼 수동적이고 지도교수에게 의존적이기보다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능력 부족과 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고, 노력은 충분히 하지 않고 욕심만 앞선다던가, 학업을 위해 포기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실무 병행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박사과정에 지원한 사람들은 기본 자질이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교수가 주는 피드백이나 가이드를 따라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박사[과정]가 석사과정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독립성 같거든요. 독립적으로 연구 주제를 정해서 독립적으로 연구 활동하고... 그럼 지도교수는 뭐하는 사람인가, 옆에서 같이 가면서, 어떻게 보면 구경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잘하고 있다. 가끔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그런 때 버팀목 정도 해주는 것. (교수자 #4)

세 번째는 지도교수로서 정신적 지지 제공이다. 지도교수가 격려해주고, 지적 성취, 자기 계발, 인간 관계 등에 의미를 부여해서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원인 한국외대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박사생들을 지도해온 양교 교수자 8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박사생 지도의 어려움, 지도 스타일, 지도교수의 역할, 연구 능력에 대한 관점, 박사생 연구 능력 향상법, 코스웍 이후의 지도에 대한 의견 등을 살펴봤다. 또한 그 결과를 본 조사 참가자들에게 지도를 받은 박사생들의 답변과 비교해봄으로써 국내에서 가장 많은 통번역학 박사를 배출하고 있는 두 박사과정의 현 주소를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파악하려 노력하고 박사교육 전반에의 함의를 찾고자 했다. 참가자 규모가 작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거나 비슷했다는 점

에서 전문대학원 통번역학 박사교육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지도교수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확고한 우위를 갖고 이끌어가는 타 분야와 달리 학제적 연구가 많은 통번역학에서는 지도교수가 자신이 모르는 분야를 지도해야 하고 이에 따라 거시적 방향만 제시하는 연구방법론 중심의 지도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지도교수 자신의 경험이 현재 지도 스타일에 영향을 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앞으로 후속 세대에서도 현재의 지도 스타일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도 스타일과 지도학생의 니즈 간 합치 여부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보예히(Boeche 2016)의 지도 스타일 유형표를 이용해 진척도나 지도 단계별로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이 솔직하게 서로의 기대와 니즈를 확인하고 함께 지도 스타일을 조율하는 방법을 활용해 볼 만하다. 또한 연구 설계 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박사생들이 많은 만큼 방법론 중심적 지도에 앞서 연구 설계 능력 배양을 위해 비판적 논문 읽기 지도 등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반적인 지도교수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수자와 박사생의 인식이 일치했으나 박사생이 실제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기대하는 요건 중 ‘지도교수의 학계 인맥/대외활동’과 ‘지도교수의 연구 능력’에 대해서는 양측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된다는 것은 학술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로 정체성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아직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은커녕 해당 커뮤니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박사생으로서는 당장 자신의 논문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자의 연구 능력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도교수의 역할에 대한 일반론과 실제의 이 같은 간극은 지도교수도 연구자로서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함을 상기시킨다.

셋째, 연구 능력에 대한 교수자와 박사생의 인식에서 드러난 차이 또한 박사생 지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인이다. 교수자 조사에서 2위인 ‘실무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박사생 조사에서는 6위에 불과했고 박사과정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덜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는가 하면, 박사생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으로 공통 1위인 학문적 지식을 제외하면 교수자 조사에서 2위인 ‘비

판적 사고력'이 박사생 조사에서는 5위에 그치고 대신 '연구 설계 능력'이 2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사이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었다. 효과적인 지도가 이뤄지려면 양측이 이 같은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자와 박사생 양측 공통으로 지적된 '학문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정기 특강이나 세미나 형식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도 스타일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수자들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학생이 하기 나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미시적 접근법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교수자들 지적대로 박사생 간 개인차가 크다면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도에 앞서 먼저 서로의 기대와 니즈, 선호하는 지도 스타일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관계는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쉽지 않은 관계인 만큼 경험과 권력에서 모두 우위에 있는 지도교수가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지도 과정 전반을 살피고 지도학생이 스스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원인 두 학교의 박사과정을 연구한 만큼 통번역학 박사과정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조사 대상인 교수자들 또한 통번역학 박사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자들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본 면접조사에 참가한 교수자 8명은 연구자 2인을 제외하고 면접조사 당시 박사학위 논문 지도 경험이 있는 교수자 가운데 실제 통번역학 박사지도 교수의 절반이 넘는 55.4%¹⁾에 해당되어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질적 연구인 본 면접조사 결과를 양적 연구 기반인 박사생 조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의 방법론적 타당성 문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으나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교수자 한쪽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교수자와 박사생 양측의 관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했고, 서론에서 밝혔듯이 통번역학 박사과정이 개설된 지 20년이 넘고 양교에서만 100명이 넘는 박사학위자가 배출됐음에도 아직까지 박사과정의 핵심인 학위논

1) 박사지도 교수 이화여대 4명 중 3명(75%)과 한국외대 14명 중 5명(35.7%)의 평균

문 작성을 위해 논문 지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논문 작성에 필요한 연구 능력은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조명된 바 없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은 교수자와 박사생 모두 통번역 실무자이자 연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학이나 언어학이 아닌 통번역학 학위를 수여한다는 점에서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과 차이점이 있겠으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본 연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이를 비롯해 통번역학 박사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승정 (2017)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와 역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정, 신택수 (2007) 「고등교육기관 핵심 역량의 구조화 및 경쟁력 지표의 개발과 적용: S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21-53.
- 성은모, 오현석, 김윤영 (2013) 「대학교육에서 산업형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프로젝트 교수학습모형 탐구」, 『교육방법연구』 25(3): 543-580.
- 손지봉 (2019) 「국내 통번역 교육내용의 현황과 의미」, 『번역학연구』 20(4): 115-140.
- 신지선 (2019) 「번역 교육의 새로운 ‘통합’ 패러다임 제안」, 『통번역교육연구』 17(2): 43-62.
- 원종화, 진실희 (202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대학원 교과 개편 사례연구: 통번역 교육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5): 121-146.
- 이경희 (2020) 「국내 학부 통번역 교육과정 현황 고찰」, 『번역학연구』 21(4): 115-150.
- 이지은, 유효미, 전양주, 정희정 (2014) 「통번역학 석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졸업생 설문조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사례연구」, 『T&I Review』 4: 51-71.

- 이진령, 박강현, 윤소정 (2020) 「대학원생 핵심역량 검사도구 개발: P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30(2): 349-371.
- 임세인 (2020) 「포스트휴먼 시대의 통역사 교육: 테크네인문학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24(2): 159-179.
- 조성은 (2007) 「학부 통번역학과와의 교육과정 연구: 재학생 대상 실태분석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2): 163-191.
- 최윤미, 김민성, 홍윤경, 남창우 (2010) 「연구역량에 대한 이해: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집단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2): 1-27.
- 허지운 (2019) 「수요자 니즈와 번역 프로세스 기반 ‘번역경영’ 교육」, 『번역학연구』 20(4): 247-278.
- Austin, Anne E. and Melissa McDaniels (2006) ‘Preparing the Professional of the Future: Graduate Student Socialization for Faculty Roles’, in John Smart (ed.) *Higher Education: Handbook for Theory and Research*, Dordrecht: Springer, 397-456.
- Boehe, Dirk Michael (2016) ‘Supervisory Styles: A Contingency Framework’,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1(3): 399-414.
- Burns, Anne, Mira Kim and Christian M. I. M. Matthiessen (2009) ‘Doctoral Work in Translation Studies as an Interdisciplinary Mutual Learning Proces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3(1): 107-128.
- Gatfield, Terry (2005) ‘An Investigation into PhD Supervisory Management Styles: Development of a Dynamic Conceptual Model and Its Managerial Implicat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27(3): 311-325.
- Grover, Varun and Manoj K. Malhotra (2003) ‘Interaction Between a Doctoral Student and Advisor: Making It Work’, *Decision Line* 34(1): 16-18.
- Halverson, Sandra (2009) ‘Elements of Doctoral Training’,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3(1): 79-106.
- Lee, Hyang and Won Jun Nam (2019) ‘The Past and Fu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South Korea’, *Perspectives: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27(3): 419-430. <https://doi.org/10.1080/0907676X.2018.1533986>.

- Lee, Jieun and Yonsuk Song (2022) 'A Surve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Doctoral Students' Experiences: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Doctoral Training in South Korea', *Forum* 20(1): 65-90.
- Li, Defeng and Chunling Zhang (2011) 'Knowledge Structure and Training of Translation Teachers: An Exploratory Study of Doctoral Programmes of Translation Studies in Hong Kong', *Meta* 56(3): 693-712.
<https://doi.org/10.7202/1008340ar>
- Lovitts, Barbara E. (2008) 'The Transition to Independent Research: Who Makes It, Who Doesn't, and Why',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9(3): 296-325.
- Murphy, Noela, John D. Bain and Linda Conrad (2007) 'Orientations to Research Higher Degree Supervision', *Higher Education* 53(2): 209-234.
- Olohan, Maeve and Mona Baker (2009) 'Coherence and Clarity of Objectives in Doctoral Project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3(1): 143-164.
- Sverdlik, Anna, Nathan C. Hall, Lynn McAlpine and Kyle Hubbard (2018) 'The PhD Experience: A Review of the Factors Influencing Doctoral Students' Completion, Achievement,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13: 361-388.
- Vandepitte, Sonia (2013) 'Research Competences in Translation Studies', *Babel* 59(2): 125-148.
- Wright, April, Jane P. Murray and Patricia Geale (2007) 'A Phenomenographic Study of What It Means to Supervise Doctoral Students',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6(4): 458-474.

[Abstract]

Doctoral Supervisors' Views on Translation Studies Doctoral Research Competence and Supervision: An Interview-Based Study

Jieun Lee* & Yonsuk Song**

(Ewha Womans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topics of doctoral training and doctoral supervision have been under-researched in translation studies (TS). In order to fill the gap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sought to examine doctoral supervisors' experiences and their perspectives on improving doctoral research competence in TS. We interviewed eight academics who have supervised TS doctoral students at the graduate programs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data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ommon challenges they experienced in doctoral supervision were supervising students who lacked preparation for and commitment to PhD research. They also mentioned their own difficulties with supervising students working on diverse, often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pics that did not coincide with their own research areas. They generally agreed that the principal role of supervisors should be to guide students from a macro perspective and to provide emotional support and encouragement. As for research competence required in doctoral translation studies, the doctoral supervisors valued critical thinking the most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reading before anything else and practicing academic writing. We have analyzed the interviewees' views on research competence with those of doctoral students and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doctoral training and supervision in TS.

Keywords: doctoral students, supervisors, PhD supervision, supervisory style, research competence

주제어: 박사과정생, 지도교수, 논문 지도, 지도 스타일, 연구 능력

이지은(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jieun.lee@ewha.ac.kr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사법통역, 담화분석연구

송연석(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부교수

yonsuk@gmail.com

관심분야: 번역교육, 번역과 이데올로기, 미디어번역

논문투고: 2022년 4월 30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5월 24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6월 13일

게재 확정: 2022년 6월 18일